



##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해주세요. 제보하신 분께는 후사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혹은 길거리에 붙어 있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랜카드를 볼 때면 나는 아직도 마음이 아뜩해진다. 벌써 9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잊을 법도 하지만, 여전히 바람 한 점이 지나간 것처럼 훅하니 뚫린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참을 바라보곤 한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던 나에게 특별히 어려운 경험이나 일들은 없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 감사했다. 남들보다 잘 살지는 않아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했던 하루하루는 특별하게 욕심내야 할 것도 없는 순탄하고 평안한 일상들이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45년을 살아온 내 평생의 모든 마음고생을 한꺼번에 치르게 한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 날도 출근하여 오전의 바쁜 업무를 마치고 막 점심식사를 하려던 찰나였다. 핸드폰의 전화벨소리가 울렸다. 아내였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직감적으로 많이 다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후들후들 떨려 도저히 운전대를 잡을 수 없어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아내는 얼굴 여기저기가 찢어지고 많이 부어 있었다. 병원에서는 응급검사와 응급조치들이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저 멍한 상태로 의사들의 뒤를 따라 뛰어다녔다. 아내는 목 경추의 3번 뼈와 4번 뼈에 금이 갔고 얼굴과 가슴의 타박상 외에는 다행하게도 목숨이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정면충돌 사고치고는 그나마 경미한 부상이라는 의사의 말에 나는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건조사를 나온 경찰에게 아내는 직진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상대방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새로 산지 1년 밖에 안 되는 튼튼하다고 소문난 아내의 SUV차량은 폐차해야 할 만큼 많이 부서졌고, 다행하게도 운전석의 에어백이 터지며 목숨을 건졌다고 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상대편의 운전자는 에어백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침울했다. 아내도 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도 마냥 감사할 수만은 없었다. 응급치료가 끝나고 나서 아는 의사선생님이 계신 정형외과로 아내를 옮기고 아이들을 챙겨야 하기에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이며 잠깐 틀어 놓은 아침뉴스를 보며 우리 가족은 깜짝 놀랐다. 전 날의 교통사고가 보도되는데 아내가 가해자로 되어있었다. 불법으로 좌회전 한 것은 상대편이 아니라 아내였다고 보도되는 것이었다. 서둘러 아이들을 보내 놓고 병원으로 갔다. 이미 아침 뉴스를 통해 상황을 알고 있는 아내는 노발대발이었다. 상대방은 목숨을 잃었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죄인처럼 숨죽이고 하룻밤을 보냈을 아내는 하얗게 말라버리고 타버린 입술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길은 7년 동안이나 다니던 길이어서 좌회전이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인과 만나기로 하고 가는 길이였기에 좌회전 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고 난 차량이 멈춰 선 방향만 보더라도 무슨 사고인지 짐작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진 신호 중에 직진으로 간 것을 자기 자신이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아내는 지인들을 통하여 방송국에 항의도 해보고, 조사 나온 경찰에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돌아 온 아이들도 “아빠! 엄마가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그럼 우리 엄마 감옥 가는 거야? 나 친구들에게 그게 우리 엄마라고 말하지 못했어.”라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찰에 항의하고,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아도 조사 중이라 말해 줄 수 없다는 싸늘한 대답뿐이었다. 막막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아내의 말을 100% 믿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살아오면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 온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이럴 때는 선경험이라도 미리 있었으면 어떻게 할지 감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 손을 썼네. 이런 때는 누가 먼저 경찰에 손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기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이 사람이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살아왔구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돈 천 만원 준비해서 담당 경찰을 찾아가라고.”

지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올랐다. 언젠가 뉴스에서 보았던 뇌물을 받고 사건을 처리해 주었던 부패경찰관의 이야기도 떠올랐다. 나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적은 보수이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며 자부심을 갖고 일했다. 괜히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나만 깨끗하고, 나만 청렴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아내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이래서 공무원들이 욕 얻어먹는 거야.’ 라며 경멸하던 그 일을 나도 할 수

밖에 없었다. 적금을 깨고 여기저기 돈을 긁어모아 천만 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내는 단호하게

“아니요, 그 방법은 아니에요. 나는 내 양심을 믿을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찰을 믿어볼래요.”

그로부터 며칠 후 사고 장소에는 플랜카드가 걸렸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자동차 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이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주세요.’

경찰서에서 걸어놓은 플랜카드였다. 그렇지! 우리도 플랜카드를 걸어놓자. 여전히 경찰을 믿을 수 없었던 나는 경찰서에서 붙여 놓은 바로 옆에 플랜카드를 만들어 걸어놓았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자동차 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이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주세요. 제보하신 분께는 꼭 후사하겠습니다.’

사고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일일이 그들과 통화하면서 거의 모든 제보자들이 사고를 목격하지도 못했으면서 단순히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게는 십 만원부터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돈을 요구하며 우리 쪽으로 유리한 증언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패가 관행이 되고, 청렴이 오염되는 것이다. 그들과 통화하며 씹쓸한 마음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양심이 왜 이렇게 썩었을까? 상대방은 목숨을 잃었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은 아무렇지도 않고 오직 돈에 양심을 팔아넘기는 것인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그 유혹들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아내의 결백을 믿었고, 경찰을 믿었고,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의 불의와 태협하지 않기로 했다.

고개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던 아내는 사고 후 40일 만에 퇴원하고 그 즈음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의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건은 결말이 났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40여일이었다. 나는 나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마음 졸이며 황폐해졌던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양심이, 경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한 날이기도 했다. 나중에 경찰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2명의 제보자가 있었다고 했다. 한 명은 아내의 뒤를 따라오던 차였고, 또 한명은 상대방 차를 뒤따르던 운전자였다는 것이다. 경찰의 플랜카드와, 후사를 하겠다는 우리의 플랜카드가 나란히 걸려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했다.

그 사건은 나의 공직 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유혹은 돈과 명예가 아니겠는가? 살면서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만약 그 때 내가 불의와 태협했더라면, 놈물을 주고서 결백을 증명했다면 지금처럼 떳떳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부서의 수장이 되어서는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청렴의 기본임을 강력히 피력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것도 그 때의 경험과 신뢰가 근거가 되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이런 플랜카드를 보면 9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한 구석으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간다. 먹먹해지는 마음이 들면서 누군가 억울함으로 한숨 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이야기해 주고 싶다. 아직도 이 사회

구석구석에는 청렴하고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번 믿어 보라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있다고 격려해주고 싶다. 그 일의 목격자가 바로 나라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편법과 불의에 맞서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아내는 것을 목격하는 목격자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자고 등을 토닥이며 응원해주고 싶다.

청렴  
韓國 세상